

광주시, '7+2 민생회복 정책'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광주시가 서민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13%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5% 환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7+2 민생회복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보고회'를 열고,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보고회는 당초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집중호우로 인해 연기돼 이날 개최됐다.

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박필순·김용임·안평환 시의원, 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골목상권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 16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 광주시 살림도 빠듯하지만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선 소비쿠폰 지급, 광주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업 할인율 확대 등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에 잡히는 소비자와 전략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살려면 광주에 사람이 모여야 한다. 온라인 구매 등 소비시장은 변하고 구매력은 떨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10월 착공을 앞둔 더현대 광주, 연말 사전협상이 마무리될 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대통령실 전남팀(TF) 구성으로 날개를 단 군공항 이전, 도시철도2호선1단계 연말 도로 전면 개방,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정부투자 조거대 AI컴퓨팅센터 유치는 광주가 앞으로 살길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쓸 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광주경제에

22일 '민생회복 정책보고회'... 6224억원 투입 '7+2 패키지' 발표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환급·상생카드 13% 할인 등 상권에 활력
'골목형 상점가' 광주 전역 확대... 사·자치구·유관기관 12곳 협약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며 "광주가 커지는 일에 함께 의기투합하자"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올해 추진사업 7개와 내년 이후 과제 2개로 구성된 총 6224억원 규모의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광주시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는 ▲정부와 함께 광주·자치구 소비쿠폰 지급 ▲광주상생카드 13% 할인 ▲온누리상품권 소비액 5% 환급 ▲공공배달업 할인쿠폰 5억4000만원 확대 발행 ▲골목상권지원단 운영 ▲특별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 ▲광주시·공공기관 소비촉진을 위한 골목상권 1:1매칭 등 당장 시행할 지원 정책 7개와 내년 이후 과제인 ▲소상공인 시설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상생복합시설 마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정부와 함께 광주·자치구가 총 400억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시민 1인당 18만원에서 5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상생카드 할인

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한다. 광주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 시비를 투입해 상생카드를 지원했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골목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또 시비 16억원을 들여 온누리상품권 소비액의 5%를 환급한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업 할인쿠폰은 총 5억4000만원 규모로 연말까지 확대 발행하는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한다.

광주시는 '골목상권 지원단'을 운영해 골목형 상점이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소상공인의 행정업무 전방위로 지원한다. 1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골목상권과 1대 1로 매칭, 월 2회 이상 인근 식당 이용이나 장보기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활동도 추진한다.

내년 이후 과제로는 ▲소상공인 기반시

설 구축(150억원) ▲옛 방직공장 부지에 상생복합시설 조성(1130억원) 등이 포함돼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단체가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의 성공 추진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광주전역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주 전역의 골목형 상점가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골목상권 지원단 운영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소비쿠폰 조기 집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광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1월 경제 관련 76개 기관이 함께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골목경제 상황실을 열어 실질적인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도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무휴업 원칙을 고수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극한호우... 농작물 피해조사·응급복구 총력 벼·논콩·채소류 집중...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서

전라남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극한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피해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는 전남지역에 평균 강수량 224mm를 기록했으며, 특히 곡성에서 446mm로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전남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은 22일 현재 잠정적으로 총 7천 786.8ha로 집계됐다. 이 중 침수 피해가 7천764.7ha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실·매몰 피해는 22.1ha에 이른다.

시군별로 신안 2천8ha, 함평 1천496.8ha, 나주 1천309.4ha, 영광 760ha 순이다. 작물별로 벼 6천 531.7ha(83.9%), 논콩 486.3ha, 채소류 263.2ha, 과수 114.9ha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국지성 극한 호우에 따른 농경지 배수로 및 제방 율류, 영산강 수위 상

승 등을 들며, 특히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작물별 피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ha당 ▲농약대 100만~300만 원 ▲대파대작물출다시심는비용 400만~900만 원이 지급되며,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 지원(4인기준) 187만 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30~49% 1년·50%이상 2년) 등도 지원된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의 빠른 영농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복구 지원은 물론, 향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 점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응급복구 희망농가 파악을 통한 민·관·군 인력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지역 매력 알리

독일 K-관광 로드쇼서 관광홍보부스 현지인 호응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심 로스 마르크트(Rossmarkt) 광장에서 개최한 '2025 독일 K-관광 로드쇼'에서 전남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우수한 농식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독일 K-관광 로드쇼는 '당신의 한국을 경험해보세요(Experience Your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케이(K)-트래블, 케이(K)-팝, 케이(K)-푸드, 케이(K)-컬처, 케이(K)-뷰티 등 다양한 케이(K)-콘텐츠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된 대규모 소비자 체험형 페스티벌이다. 수천 명의 독일 시민, 유럽 관광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 유럽사무소(소장 김기철)는 행사 현장에서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관광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무대 행사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압화 부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남도 홍보부스에는 다문화 가족, 어린이,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인이 부스를 방문해 전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식품 유통 전문기업 '이지쿡아시아(EasyCookAsia)'는 전남산 유자를 활용한 유자에이드 등 음료를 현장에서 판매해 인기몰이를 했다. 상큼한 맛과 한국적인 매력이 어우러진 유자음료로, 유럽 시장에서 전남 농식품의 가능성을 엿봤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글로벌 전남으로 도약하는 전남도는 앞으로도 유럽에서의 다양한 케이(K)-문화 행사를 전략적으로 활용, 전남의 관광자원은 물론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종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7월 23일(수)부터 2025년도 제3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선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선발인원은 총 139명으로, 일반전형(120명)과 취업취약계층 대상 별도전형(보훈특별 8명, 사회형평 11명)으로 나누어 채용한다.

한국수력원자력,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8월 7일 오후 3시까지 한수원 채용 누리집에서 접수

한수원은 상반기 선발 과정을 통해 대졸수준 신입직원 등 총 268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졸·고졸수준 신

입, 연구원, 경력직원, 청년경찰, 5지급·공무직 등 다양한 선발 전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한수원 채용 누리집(www.khnp.co.kr/recruit)을 통해 8월 7일(목)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수원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